

해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제조사 검토위 향후 활동은

# 쟁점 해소 제자리... 권고안 도출될까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제2공항 반대측 등 여러한 입장차만 재확인 검토위 활동 연장에도 소모적 논쟁으로 우려 강영진 위원장 “개별적 쟁점 많지만 우려 일러... 합의 권고안 마련 노력”



15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제조사 용역 도민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쟁점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제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이하 검토위)의 권고안 도출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15일 열린 검토위 주관 제1차 공개 토론회와 제3차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측과 반대 측 패널 6명이 참석해 ▷항공 수요 예측, 공항인프라 확충 규모 적절성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보고서 문제 등의 안건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절충안을 찾는 모습 없이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다 이날 토론회와 회의를 마치면서 주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2공항 입지선정 발표 이후 입지선정 타당성 제조사 용역을 진행하라는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 검토위를 구성, 그 해 9월 19일부터 9회의 회의를 진행한 후 12월 18일 활동이 마무리됐다. 당시 반대 측은 검토위 위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개월 활동 연장'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입지선정 타당성 제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활동이 끝났음을 밝혔다. 결국 권고안 없이 파행됐다. 이후 지난달 4일 열린 국토부와 제주 제2공항반대위의 실무조정회의에서 '검토위 2개월 연장'에 합의하면서 지난달 17일 활동이 재개됐다. 이후 검토위는 오는 6월 19

일까지 회의 5회, 토론회 3회를 진행하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검토위 활동이 절반 정도 수행됐지만 합의는 안갯속이다. 원문이 공개된 ADPI 보고서에 대한 항공수요 부분에서도 정부와 반대 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회의 때 용역자인 유신 컨소시엄 관계자를 불러 해명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을 뿐, 쟁점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검토위는 이날 3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오는 29일 제주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사타용역 3단계로 할 수

있는 부지 선정 과정 의혹을 논의하기로 했다. 뒤이어 내달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는 언론·방송 등과 연계해 더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하기로 합의했다. 파행이 없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검토위 위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영진 위원장은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합의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우려를 표하기에는 이르다. 개별 쟁점이 많지만 합의된 권고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 도내 기업 구인난 숨통... “사업 효과”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 제주도, 만족도 점검 결과 타 지역 우수인력 채용 효과 취업청년들 만족도도 높아

난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은 2명 모집에 42명이 지원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한림읍 소재 중소 제조업은 시외권인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었지만, 타 지역 청년들이 지원하면서 4대 1의 경쟁률을 통해 우수한 청년을 채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기업의 만족도와 취업청년의 지역 정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일자리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확충 등 지역의 문제와 청년의 안정적 정착, 민간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경로 ▷근무환경 ▷임금 수준 ▷교육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자리 창출 ▷임금 수준 ▷일경험 기회 제공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90개소를 직접 방문해 ▷근무환경 ▷청년 및 기업 지원 현장실태 ▷에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인

사업지원 경로 ▷근무환경 ▷임금 수준 ▷교육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자리 창출 ▷임금 수준 ▷일경험 기회 제공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지원 경로와 사람인 등 취업사이트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됐다는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18 일하는 청년 제주도' 사업(지역정착형)의 경우 참여자 59명 가운데 32명(54.2%)이 타지역 출신 청년들로 조사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리기자

# 도 공공기관 첫 통합공채 18일 필기시험

개발공사 행정6급 가장 치열 평균 17.2대 1... 최고 94대 1

야 한다. 시험시간은 응시직렬(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해야 하며, 응시표는 인터넷넷서접수홈페이지(<https://jeju.incruit.com>)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2019년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통합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 첫 시행되는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공채에 따른 절차다.

제주도가 상반기 통합필기시험을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31명 선발에 533명이 응시해 평균 17.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제주개발공사 행정 6급 시험에는 3명 선발에 282명이 응시해 94: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표성준기자

상반기 통합필기시험은 지정 시험장 2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을 소지해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

전기차 배터리 활용 제품개발 제주도·JTP, 참여기업 모집

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자전거와 휠체어, 카트와 같은 운송형 제품, UPS와 가로등과 같은 고정형 제품 등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제주기업들의 제품 개발 지원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이하 JTP)는 오는 26일까지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제품 개발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JTP는 3개 기업·컨소시엄을 선정해 총 2억2500만원 상당의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모듈을 활용한 실증제품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제품제작을 위한 개발용 재사용 배터리와 최대 7500만원의 실증제품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관련기업으로,

신청은 온라인(jeis.or.kr)으로 가능하다. 이소진기자

# 제주 감귤, 다시 북으로 가나

오영훈 의원,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회동서 북한에 제주농산물 보내기 사업 재개 필요성 강조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해왔던 제주농산물의 북한보내기 사업 재개 필요성이 제기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은 지난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동북아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임종성, 유동수, 김한정, 이재정 의원과 함께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북한 식량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식량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 식량문제 해결이 핵 문제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WFP를 통한 지원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이는 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

때문에 지원식량이 균용으로 전용될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제주농산물 북한 보내기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는 인도적 차원에서 감귤 및 월채채소류의 북한보내기를 꾸준히 진행해왔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깝다"며, "유엔세계식량계획(WFP)한국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제주농산물 북한보내기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윤-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제16회 삼양초등학교총동문 한마음축제

신록의 계절을 맞아 삼양초동문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제16회 삼양초등학교총동문 한마음축제를 열교자합니다. 이에 동문 및 가족, 삼양초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화합의 무대에 초청합니다.

**일시** 2019년 5월 19일(일) 10:00

**장소** 삼양초등학교운동장  
※우천시 모교강당에서 개최

- 참석대상 : 모교동문 및 가족
- 주관기수 : 삼양초 26회, 36회, 46회
- 주최 : 삼양초총동문회
- 후원 : 삼양초등학교

※연락처 : 회 장 양방규(28회) 010-3699-0504  
수석부회장 안창남(29회) 010-9898-0084  
사무국장 박훈수(38회) 010-4690-6181

후원계좌

새마을금고  
9002-1893-5777-9  
(삼양초등학교총동문회)

### 삼양초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양방규